끊을 것 없는 無生 경지 진정한 열반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⑯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세존이시여, 아라한이나 벽지불 그리고 맨 마지막 몸(最後身)을 받은 보살은 무명주지에 덮였으므로 저마다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완전히 깨닫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므로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끊지 못하였으므로 허물이 남은 해탈이라 하고, 허물을 모두 여읜 해탈이 되지 못하므로 나머지가 있는 청정이라 하고, 완전한 청정이라 하지 못하며, 남음이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다할지언정, 완전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남음이 있는 해탈과 남음이 있는 청정과 남음이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남음이 있는 고(苦)를 알았고, 남음이 있는 집(集)을 끊었고, 남음이 있는 멸(滅)을 증득하였고, 남음이 있는 도(道)를 닦았으니, 이것을 부분적 열반[少分涅槃]을 얻었다 합니다. 부분적 열반을 얻은 이는 완전한 열반의 경지를 향하는 것이라 합니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열반의 개념이 달라졌다. 열반(涅槃)이란 원래 범어 Nirvama를 음사한 말로 적멸(寂滅), 멸도(滅度), 원적(圓寂)이라 번역한다. 때로는 취소(吹消)라고도 번역했는데 바람에 촛불이 꺼지듯이 번뇌의 불길, 혹은 욕망의 불길을 꺼버렸다는 뜻이다.

대승에서는 이승들의 수행을 평가절하하여 번뇌를 완전히 끊은 경지가 아닌, 아직도 끊어야 할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으며, 따라서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다. 열반을 유여열반(有餘涅槃)과 무여열반(無餘涅槃)으로 나누는데 이 장에서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무명주지에 덮여있어 무명이 남아 있으므로 끊어야 할 번뇌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그래서 조금 부분적으로 열반을 얻은 것이지 완전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진정한 무여열반이 아니라는 말이다. 해탈도 유여해탈과 무여해탈로 나누어 말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아욕다라삼막삼보리심을 발한 보살은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① 광대심(廣大心)으로 일체 중생 전부를(금강경에서는 구류중생(九類衆生)이라 한다) ② 제일심(第一心)으로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 ③ 상심(常心)으로 중생을 멸도해도 실로 멸도한 중생이 없어야 하며 ④ 부전도심(不顚倒心)으로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의 사상(四相)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금강경〉의 사심(四心)에 머물러 사상(四相)이 없는 경지가 〈승만경〉에서 말하는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경지이다. 열반이라는 말이 소승과 대승 그리고 경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경열반(究竟涅槃)'이란 말이 깨달음의 극치인 열반에 이르렀다는 말로 오온(五蘊)도 없고 자아(自我)도 없다는 뜻인데 이 경지를 무여열반으로 보는 관점이 〈광백론(廣百論)〉 등에 설해져 있다. 또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말하기를 "나의 법은 생로병사를 여의고 필경에 열반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성유식론〉에는 열반에 4가지가 있다고 설하면서 뜻에 차이가 있다 하였다. ① 일체법의 실성인 진여를 가리켜 본래자성청정열반이라 하였다. 아무리 번뇌에 덮여 있어도 자성은 본래 청정하여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② 유여의열반으로 번뇌장을 끊어 진여가 나타났으나 이숙(異熟)의 고과(苦果)가 몸에 남아 있는 상태다. ③ 무여의열반은 유여의열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숙의 고과가 없어져 남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④는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라 하였다. 무주처열반은 번뇌장(煩惱藏)과 소지장(所知障)이 둘 다 없어지고 나타난 진여로 보살들이 이 열반을 증득해 큰 지혜를 이루어 생사에 머무르지 않고, 미계(迷界)를 떠났음에도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대비심 때문에 열반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무는 곳이 없다는 뜻에서 무주처열반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중 ①은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각진심(本覺眞心)을 열반으로 본 것이고 ②와 ③은 이승(二乘)들이 얻는 열반이다. 대승의 관점에서는 ④의 무주처열반이 완전한 열반이 되는 것이다. 번뇌를 두고 말할 때 번뇌를 끊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소승에서 말하는 열반이고 대승의 열반은 번뇌가 공해져 끊을 것이 없는 무생(無生)의 경지가 진정한 열반이라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음신앙 염불수행 칭명서 시작

〈稱名〉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㊴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에는 타력적인 수행과과 자력적인 수행이 함께 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타력적인 수행이란,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력과 가피력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종교적 가피를 얻기 위한 일환으로 관세음보살을 칭명으로 염불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력적인 수행이란, 수행자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닮아 완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비심을 바탕으로 중생구제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음신앙의 염불수행에서는 신앙적 가피를 얻기 위한 타력적인 칭명염불수행과 성불을 위해 중생구제의 대승보살도를 함께 실천하는 자력적인 측면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음신앙의 올바른 염불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의 공덕상을 기억하는 칭명염불 수행과 함께 대비심을 토대로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도를 함께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초기불교의 관음신앙 염불수행에서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얻어 개인의 고난을 벗어나 복락을 구하는 것이 수행자들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대승불교가 발전되면서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이념에 입각해 깨달음과 자비를 함께 실현하려는 성불의 목적이 더욱 강조되다보니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증일아함경〉에서 여래의 공덕을 염하는 염불과 함께 여래의 형상을 관하는 관법(觀法)을 함께 수행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비구가 몸과 뜻을 바르게 하고 결가부좌하여 생각을 묶어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부처님을 염하며 여래의 형상을 관하는데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다시 여래의 공덕을 염하라"고 설한 것처럼, 칭명염불 수행은 여래의 공덕을 염하는 '염불'과 여래의 형상을 관하는 '관법(觀法)'을 함께 수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칭명염불 수행이 주를 이루던 초기불교의 염불수행과는 달리 대승불교로 나아가면서 염불수행은 더욱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초기불교의 칭명염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되풀이하여 생각' 하는 칭명(稱名) 염불수행이 주를 이루었지만, 대승불교로 발전되면서 염불수행은 선정삼매에 들어 관세음보살님을 관찰하는 관불(觀佛)이나 관상(觀想)의 염불 수행으로 주된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관상·관불의 염불수행은 선종의 선불교와 만나 융합되면서 염불선(念佛禪) 등으로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승불교에 오면서 칭명과 염불수행은 불·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면서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고, 제법을 관하는 지(止)관(觀) 수행과도 함께 병행되어 실천되어 왔습니다. 즉 염불수행은 유가유식의 수행법과도 결합되어서 선관수행이나 지관수행으로도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칭명수행은 유가행과 결합하여, 육근 가운데 이근(耳根)을 통해 소리를 관하는 선관수행을 통해 자심을 증득하는 이근원통의 수행으로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관음신앙에서의 염불수행은 칭명(稱名)에서 시작합니다. 불자 여러분! 관음신앙에서의 염불수행은 관세음보살님의 서원과 가피력를 기원하기 위해 믿음을 일으키며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하며 칭명염불수행을 해야 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⑯ 사자후에 대한 큰 경 ②

수행은 다른 이와 아무 관계성 없다

"나는 네 가지 범주의 청정한 삶을 실천했다. 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나는 참으로 구차한 삶을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구차한 삶을 살았다. 나는 참으로 삼가는 삶을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삼가는 삶을 살았다. 나는 참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다."

수행은 누구를 밟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극단적인 네 가지 청정한 삶을 보면 다른 이와 관계없는 오직 자신에 대한 탐구로 수행을 삼고 있다. 이것이 수행에서 청정한 삶의 실천이다. 다른 이와 관계없는 수행이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이와 관계있는 것을 수행으로 삼으면,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수행의 바른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변하는 것으로써 수행을 삼으면, 항상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과 같다. 변하는 것은 끝날 것 같지만 끝없이 돌고 돈다. 그러니 주변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신만의 수행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지만 움직이고 변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관찰할 수 있다.

오온은 신체의 피부를 경계막 삼아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고, 그 내부를 자신이라 여기고 외부를 보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지하여 관찰한다. 이것은 관찰이 아니라 아만이고, 자만이고, 교만이다.

이러한 관찰은 관점이 생겨나는데, 이 관점 안에서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그리고 잘 관찰하면 자신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무의미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어떻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까? 이것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다. 관찰한다는 것은 느낌이 있고 생각이 일어날 때, '나는 이러한 느낌과 생각을 가질 것이다.' 라고 느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을까? 그 뿌리는 오온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느낌과 생각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회광반조(廻光返照)를 일으켜 질문해야 한다. '지금 느끼고 생각한 것이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인가?' 만약 나의 일이라면, 나는 일어날 느낌과 생각을 미리 알았어야 한다. '하지만 미리 알지 못하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일어난 후에야 느낌과 생각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아는 순간이 모든 의문에 대한 문이 열리고 지금까지 꿰지 못한 단추들이 일시에 꿰어지는 때이다.

'나' 라는 범주 없이 관찰하는 것, 보이지 않는 범주를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지, 이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움도 쉬움도 없다.

완전히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나' 라는 생각의 뿌리는 오온이 있는 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끊어짐 없는 것이 앎이 되는 것이다. 번뇌가 일어나니 지혜가 샘 솟는 것과 같고, 거짓이 일어나니 진리가 뒤따라오는 것과 같다. 그는 그것을 번뇌다, 거짓이다, 말하지 않고, 지혜다, 진리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밖에서 일어나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번뇌니 거짓이니 말하고, 그 말한 자를 자기라 여기고 괴로워하든지 근심하든지 혹은 방도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숨은 뜻을 모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어만을 믿고, 언어를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고 말하고, 나는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자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유무(有無)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바른 봄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봄을 가졌다면 청정한 삶의 실천을 하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